

일본 마쓰리(祭り)의 활성화와 전승(伝承) 메커니즘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를 사례로—

이 덕 구*

(e-mail : dklee0618@hj.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에 보이는
공통 구조와 의미 |
| 2. 마쓰리(祭り)와 축제(祝祭) | 4.1. 경쟁구도 |
| 3.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의 전개와 효과 | 4.2. 문화(자랑의식, 지역 활성화) |
| 3.1.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靑森ねぶた祭り) | 4.3. 고도의 기술 |
| 3.2. 아키타 간토마쓰리(秋田竿灯祭り) | 4.4. 어린이의 참가 |
| 3.3. 센다이 다나바타마쓰리(仙台七夕祭り) | 4.5. 상인의 자금 |
| | 5. 결론 |

キーワード : 競争(Competition), 祭り文化(Culture of Matsuri), 技(skill), 子供(children), 商人の資金
(corporate money)

1. 서론

일본 사회에서 마쓰리(祭り)는 지역사회 유지와 ‘우리’를 의식하는 불가결한 것이었으나 전후(戰後)부터 고도 경제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마쓰리(祭り)의 사회적 기반인 공동체의 붕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쇠퇴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도시의 대규모 마쓰리(祭り)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마쓰리 붐이 일어났으며,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마쓰리의 재건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객 행사로서 특별히 모시는 신(神)이 없는 이벤트성 시민마쓰리(市民まつり)¹⁾도 전

* 해전대학교, 부교수, 문화인류학

국각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는 전통 마쓰리를 변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은 지역의 전통성이나 정체성과 동떨어진 내용의 형식적인 축제,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관 주도의 예산 낭비 축제, 지나친 상업성,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는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동북(東北)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오모리(靑森)의 네부타마쓰리(ねぶた祭り), 아키타(秋田)의 간토마쓰리(竿灯祭り), 센다이(仙台)의 다나바타마쓰리(仙台七夕祭り)에 보이는 공통적인 구조적, 문화적 특징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동북지방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개발이 뒤쳐진 대표적 과소(寡少)지역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마쓰리(祭り)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타 지역의 마쓰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마쓰리를 생성하는 등의 창조적 문화현상²⁾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전통 마쓰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관광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오랜 세월 과소화의 환경에서도 지역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전승되고, 마쓰리 속의 어떤 요인들이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게 했는지, 즉 전통마쓰리의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고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북(東北)의 지역 활성화 정책 및 각 마쓰리의 변화와 생성과정, 도시 변화에 따른 마쓰리의 성격 변화 양상,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현지조사³⁾, 문헌조사⁴⁾, 인터넷자료, 서신교환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성 축제를 말한다.
- 2) 이덕구(2011) 「일본 지역 전통축제의 관광화와 시사점」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7-307. 참조.
- 3) 현지조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쓰리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 마쓰리 관람객과 참여자들, 시민들과 인터뷰 및 마쓰리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행하였다.
- 4) 문헌은 축제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 신문기사, 그리고 관련 연

2. 마쓰리(祭り)와 축제(祝祭)

아시다테츠로(芦田徹郎)는 “마쓰리(祭り)란 동일 사회집단의 멤버가 어떤 한정된 비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모두 모여 동일화(同一化)를 통한 동질성(身内 혹은 仲間)과 공동성을 재확인 하는 사회적·문화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동일 사회집단의 모든 멤버 위에 있는 ‘신(神)’이 존재하는 어떤 일시와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엄격한 의식을 통하여 일상의 사회질서 정통성을 재확인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꾸로 일상의 자질구레한 약속을 무시하고 함께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흥분상태 속에서 개인사를 잊고, 혼자자 아닌 ‘우리(われわ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이다. 즉,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으로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쓰리(祭り)라 했다.⁵⁾

야나기다쿠니오(柳田国男)는 ‘케(ケ)’와 ‘하레(ハレ)’라는 말로 일상과 비일상적인 마쓰리(祭り)를 대비하고 있으며⁶⁾, 사쿠라이도쿠타로우(桜井徳太郎)는 ‘하레(ハレ)’ - ‘케(ケ)’ - 케가레(ケガレ)라는 순환 도식으로 마쓰리(祭り)를 설명하고 있다.⁷⁾ 이 도식에서는 마쓰리(祭り) 즉, ‘하레(ハレ)’상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인 ‘케(ケ=氣)’가 고갈된 케가레(ケガレ=氣枯れ)상태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의 장이다.⁸⁾

종합해 보면 마쓰리(祭り)란 동일 사회집단의 멤버가 신(神)⁹⁾이 강림해 있는

구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발행하는 문서와 보고서들, 축제조직위에서 발행한 문서와 보고서와 팸플렛 그리고 시와 축제조직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YouTube 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였다.

- 5) 芦田徹郎(1990) 「祭りと現代社会・序説」 『熊本大学教養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25, p.33. 요약.
- 6) 야나기다쿠니오는 메이지(明治) 이후 서민의 생활 변화에 대해 ‘케’와 ‘하레’의 혼란, 즉 드물게 출현하는 곳의 흥분(奮昂)이라는 것의 의미를 점점 가볍게 보게 된 것이라 하면서 희박해진 마쓰리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柳田国男1993, p.29). 비슷한 개념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성(聖)과 속(俗)의 순환으로 축제를 설명한다(聖俗二元論 참조).
- 7) 桜井徳太郎(1984) 『共同討議 ハレ・ケ・ケガレ』 青土社、pp.23-25.
- 8) 프랑스의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사쿠라이(桜井)와는 거꾸로 에너지의 충전 장소로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일상생활에서 축적된 과잉에너지를 방치하면 폭발할지도 모르는 에너지) 사회적 장치로서 축제를 설명하고 있다(류정아 2013, p58-62.).
- 9) 와케세이치로(和氣静一郎)는 마쓰리(祭り)와 마쓰리 속의 신(神)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신(神)은 사람들을 가족, 땅, 공동체로 연결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이며, 마쓰리(祭り)는 그 집중적 표현이다. 여기서 이데올로기 장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의 질서에 통합하는 수로이며, 이때의 이데올로기 내실은 가부장적 신분제적 질서이다”라고 설명한다(和氣静

특정 장소와 시간에 집합하여 엄격한 규칙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희박해진 공동성(집단적 identity)을 충전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장치(儀禮, ritual)이면서, 일상생활을 통해 과잉 축적된 사적인 에너지(재물)를 탕진하는 찬스(祝祭, festival)이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공동성’과 ‘비 일상성’이라는 특성은 마쓰리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이다.

마쓰리(祭!)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 악기, 춤 등으로 서로 경쟁하며 ‘비 일상성’을 즐기고 ‘공동성’을 확인한다. 미코시(御輿)를 흔들며 힘을 과시하고 서로 겨루는 행위는 얼핏 보면 사람들의 일체화를 거꾸로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것은 전체적인 집단 속에 보다 작은, 보다 가까운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쓰리 속에 제도화된 대립이며 경쟁이다. 즉, 마쓰리 속에 심어진 경쟁과 대립을 통해 타집단(他集團)과 타자(他者)로부터 구별되는 자집단(自集團)과 자기(自己)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본질을 가진 마쓰리(祭!)는 전후(戰後)부터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현저히 쇠퇴했다. 이는 일본인의 생활 전체의 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촌에서는 마쓰리(祭!)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젊은 층이 마을(村)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으며, 도시는 ‘직주분리(職住分離)로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어 마쓰리(祭!)의 사회적 기반인 공동체의 붕괴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개인의 관심도 소득과 사생활로 옮겨갔으며, 도시에는 백화점이나 변화한 중심지의 분위기나, 각종 기념일 등으로 마쓰리와 같은 흥분 상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의 종언을 기점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마음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일어난 여행 붐과 함께 ‘물건의 시대로부터 마음의 시대로’(モノの時代からこころの時代へ)라는 시대 정서를 배경으로 도시의 대규모 마쓰리(祭!)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 교외의 베드타운과 마쓰리가 없던 도시에서도 새로운 마쓰리가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벤트로서의 ‘시민마쓰리(市民まつり)’ 즉 신(神)이 없는 ‘슈쿠사이(祝祭)’는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마쓰리(祭!)까지 관광과 오락 등의 지역 활성화 도구로 활용되면서

一郎2000, p.84.).

10) 전개서, 芦田徹郎 p.37. 여기서 아시다는 카이와(Roger Caillois)의 놀이의 유형 중 경쟁 놀이와 현기증놀이에 마쓰리가 가장 가깝다고 본다.

그동안 터부시되던 여성과 외국인의 참가도 적극적으로 기도(企図)되어 엄숙 웅장 보다는 명랑 화려함으로 성격 변화도 일어났고, 이 중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마쓰리도 다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주도의 새로운 마쓰리(市民まつり), 祝祭)만으로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한계가 있어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 마쓰리(祭り)를 무분별하게 관광 자원화(변용) 하거나 상품화하는 행정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 “황금알을 구하여 어미닭을 죽여 버리는 것”과 같이 지역 활성화의 잠재적 가능성까지도 도려내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현실이다.

3.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의 전개와 효과

3.1. 아오모리 네부타마쓰리(青森ねぶた祭り)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는 일본 혼슈(本州)의 최북단 아오모리현(青森県) 아오모리시(青森市)에서 매년 8월 2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마쓰리로서 마쓰리 행렬은 네부타, 음악(하야시), 사람(하네토, 바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부타라는 등롱을 특수 제작한 수레 위에 싣고, 하야시라는 반주대의 피리, 북 등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 음악에 맞춰 하네토라 불리는 무리가 춤을 추며 수레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70년대부터는 3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아오모리시(青森市)에 불러들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름축제(夏祭り)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 칠석제(七夕祭)의 일환으로 조나이(町内) 공동체의 소원을 빌며, 재력과 결속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네부타(웅장하고 무서운 모습)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정확한 기원이나 유래도 확실하지 않은 오래된 전통 마쓰리이다.

경제력 있는 도시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나이(町内)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던 네부타는 전후(戦後) 미나토마쓰리(戦災復興港祭り)로 부활했을 때에는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기타 문화행사 등 다양하고 잡다한 프로그램 속의 일부(피날레)로 존재하다가, 1948년부터 관광화를 의식하여 도입한 시상제도로 인해 마쓰리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¹¹⁾ 1964년부터는 잡다한 프로그램

을 정리하고 네부타만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의 도시축제로 발전하여 상품화가 되었다.¹²⁾

<표1> 아오모리네부타(靑森ねぶた祭り)의 구성 요소

	대형 네부타	네부타 본체로서 높이 5미터, 가로 9미터, 세로 8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제재(題材)로는 가부키(歌舞伎)나 역사(歷史) 혹은 신화(神話) 속의 인물이나 무사(武士)를 표현한 입체형으로 통칭 네부타라 하면 대형 네부타를 의미하며, 마쓰리에서는 약 24대의 대형네부타가 운행된다.
네부타	마에 네부타 (광고 네부타)	원래 대형네부타의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작은 네부타를 마에네부타(前ねぶた)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대형 네부타를 운행하는 단체가 자기PR용으로 제작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고네부타로 불린다.
	어린이 네부타	어린이네부타는 주로 어린이회, 학교,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제작하고 어린이를 위하여 운행하는 소형 네부타이다.
	금붕어 네부타	금붕어네부타는 마쓰리기간에 시내 주요 역사(駅舎)나 상가(商家), 일반 가정의 처마에도 줄지어 걸며 장식하는 금붕어 모양의 인형을 가리키며, 네부타마쓰리의 상징성을 띤다.
하야시	하야시(囃子, 음악 혹은 그 악기)는 대형 네부타의 행렬에 뒤따르는 피리(笛), 북(太鼓)등으로 꾸며진 웅장한 음악대를 말한다. 주로 지역주민들이 역할을 담당하며, 이 하야시의 연주에 맞춰 하네토가 춤춘다.	
하네토	하야시(囃子, 반주)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을 말하며, 춤출 때 일제히 ‘랏세라~ 라세라~’ 라는 구령을 외친다. 춤추는 방법은 깨금발 뛰듯 단 순히 폴짝 폴짝 뛰어 오르는(하네르:跳ねる)것이기에 누구나 쉽게 참가하여 춤을 추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최 측은 경쟁적으로 하네토로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쓰리의 꽃으로 불린다.	

11) 심사제도가 마쓰리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는데, 먼저 네부타의 크기 제한 폐지로 초대형네부타가 등장하였고, 다음으로 네부타가 심사의 대상이 되어 예술작품으로서 작품의 변화가 있었으며, ‘네부타쟁이(ねぶたごへ)’가 ‘네부타시(師)’로 불리어지게 되었고, 젊어지는 네부타에서 끄는 네부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륜차의 도입 등 다양한 창의적인 궁리가 더해지고, 네부타를 밝히는 조명이 촛불에서 전구로, 나아가 형광등으로 변화하고, 네부타의 골조가 대나무에서 철사골조로 바뀌었다(阿南2003, pp.273-274.).

12) 1948년의 프로그램은 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민요대회나 연예, 무용,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의 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민 화합형 행사였으나, 1958년의 ‘아오모리네부타마쓰리’로의 개최명 변경과 함께 주변 행사들이 서서히 정리되어 오다가, 1964년부터는 네부타만의 전문화된 도시축제로 고정되었다(이덕구2010, p.437.).

바게토	바게토는 마쓰리에 가장(仮装)하여 참가하는 사람들로서 우스꽝스런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시대를 풍자하거나 지역의 이슈를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네토의 증가에 따라 수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	--------------------------------------------------------------------------------------------------------------------------------------

현재 네부타의 제작은 네부타시(ねぶた師)¹³⁾라는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 각종 상점이 스폰서가 되어 네부타를 만들고 운행하며, 주최 측인 아오모리시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가 심사한다.¹⁴⁾

심사 포인트는 대형네부타 본체의 완성도와 인기도, 뒤를 따르는 하네토와 하야시의 규모와 숙련도 등이며, 축제다운 소리로 열광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 하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⁵⁾

아오모리네부타(靑森ねぶた祭り)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지역 신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올해 인파는 20만 혹은 15만으로 집계되었다. 이 사람들이 아오모리시에 떨어트린 돈은 지난해의 결산 5천만 엔보다 배가 늘어난 1억 엔에 이를 것 같다.(東奥日報 1956.8.9日字)”,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네부타 연합 대 바겐세일’에서 약 3억 엔이 상점가에 뿌려진 것을 시작으로 시내에 약 8억 엔 가까운 돈이 움직였다고 주최 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억 엔 증가한 것으로 한 사람당 444엔에 해당하며, 시내 각 백화점도 매상이 4, 5할 증가라며 상

13) 메이지 시대까지는 조나이의 유지가 주로 네부타 제작을 담당했지만 전후(戰後) 점차 이름 있는 제작자가 주문을 받게 되었고, 제작비가 고액화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2014년 현재 아오모리의 전문 네부타시(ねぶた師)는 15명으로 각각 작풍이 다르다고 한다(이덕구2015, p.291.).

14) 대형네부타 1대를 제작하는 데는 평균 1천만 엔이 필요하며, 6일간을 운행하는 또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약 24대의 대형네부타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그 경비는 4억8천만 엔 정도이나 대형네부타 이외에도 어린이네부타 등 각종 중소형 네부타도 있어서 참가집단이 담당하는 액수의 정확한 추정은 매우 힘들지만, 대형네부타만으로 추정해보면 5억 엔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서 마쓰리 운영경비와 각 참가집단이 부담하는 네부타의 제작과 운영경비까지를 고려하면, 한해의 네부타마쓰리에 최소 약 7억 엔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중에 시의 보조금(세금)은 2489만 엔에 불과하며 의료와 안전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만 쓰이니 마쓰리 비용은 전적으로 참가집단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이덕구2010, p.440.).

15) 2008년 현재의 심사방법은, 심사원으로는 ‘주최단체, 보도기관, 학자 등 네부타에 정통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장려위원 20명과 일반심사위원 10명으로, 부문별로 네부타 본체에 60점, 운행에 15점, 하야시(囃子)에 15점, 하네토에 10점이 주어지며, 축제다운 소리로 열광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 한다(東奥日報 2008.08.05日字).

클빙글했으며, ‘쓰가루사탕(津軽アメ)’과 ‘사과과자(りんご菓子)’가 선물용으로 잘 나갔다(東奥日報 1964.8.10日字).”, “2억 엔을 투자하여 100억 엔을 벌었다(東奥日報 1982.8.4日字)”는 보도도 나왔다.

<표2>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의 경제 파급효과(단위 : 억 엔)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자소득유발액
직접효과	371.53	205.49	105.99
제1차 간접효과	122.79	67.42	32.85
제2차 간접효과	87.87	63.34	24.22
경제파급효과	582.19	336.25	163.06
파급배율	1.03	(경제파급효과/직접효과)	

비교적 최근의 2010년 보고서 자료 <표2>를 참조하여 보면, 마쓰리 개최 기간 6일간 320만 명이 아오모리를 다녀갔으며, 경제효과의 분석으로는 생산유발액이 약 582억 엔, 부가가치유발액이 약 336억 엔, 고용자소득유발액이 136억 엔으로 조사 되어있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개인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제일 커 179억 엔, 운수 138억 엔, 상업 70억 엔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22개 부문에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에 관하여는 종업원이 7,113명, 고용자가 5,390명 증가하였고, 종합적으로 네부타마쓰리(青森ねぶた祭り)의 개최로 인해 아오모리현(青森県) GDP를 0.7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¹⁶⁾

이와 같이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오모리시(青森市)의 부흥과 발전의 상징으로서 아오모리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주는 둘도 없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의의도 깊다.

3.2. 아키타 간토마쓰리(秋田竿灯祭り)

간토마쓰리(竿灯祭り)는 원래 아키타현(秋田県) 일대에서 오곡풍양(五穀豊穰)이나 무병식재(無病息災)를 기원하는 칠석행사로서, 처음에는 상인(商人)들과

16) 寺田良介(2010) 「青森ねぶた祭り」と秋田竿灯祭りの経済効果」弘前大学人文学部[編], pp.2-3.

장인(匠人)들만 모여 사는 마을(町人町)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촛불과 등롱(提灯)이 서민에게도 보급되면서 등롱(提灯)의 수가 수십 개로 늘어났고, 모든 조나이(町内)가 재주를 겨루게 됨으로써 현재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표3> 간토(竿灯)의 종류¹⁷⁾

구분	높이	무게	등롱크기(높이×가로)	등롱 수
오와카(大若)	12m	50kg	64cm×45cm	46個
주와카(中若)	9m	30kg	48cm×36cm	46個
고와카(小若)	7m	15kg	48cm×36cm	24個
요와카(幼若)	5m	5kg	30cm×21cm	24個

현재 아키타현(秋田県) 아키타시(秋田市)에서 매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있으며, 가로 45cm 세로 60cm 정도의 등롱(提灯)을 긴 대나무 장대에 9단에 걸쳐 총 46개를 매단 형태의 간토(竿灯)¹⁸⁾를 중심으로 큰북과 피리로 반주를 넣는 하야시¹⁹⁾로 구성되며, 마쓰리기간 중에 밤에는 열을 지어 시가지를 행진하며 낮에는 묘기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토(竿灯)의 종류에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종류가 있으며, 매년 280본(本)의 간토(竿灯)에 약 1만개의 등롱(提灯)이 매달려 장관을 이룬다. 간토(竿灯)의 행진에는 큰북과 피리로 반주를 넣는 하야시가 동반하며 “돛코이쇼! 돛코이쇼!”라는 구령을 외치며 5~6명의 조정자가 한 팀이 되어 번갈아 가며 간토(竿灯)를 조정한다. 간토마쓰리(竿灯祭り)에 참가하는 단체는 매년 약 70팀이 넘는데, 조나이(町内)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38팀과 기업이나 학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또 그 정도 있다.

17) 요와카(幼若)는 유치원생 이하의 참가자가, 고와카(小若)는 초등학교, 주와카(中若)는 중학교, 오와카(大若)는 고등학교 이상 일반인이 사용한다.

18) 간토(竿灯)는 대나무 장대에 매단 등롱으로, 버이삭과 쌀가마니를 상징한다. 본고에서는 원음 그대로 간토로 표기한다.

19) 하야시에는 ‘나카시하야시(流し囃子)’와 ‘본하야시(本囃子)’ 두 종류가 있으며 ‘나카시하야시(流し囃子)’는 간토(竿灯)가 대회장으로 입장할 때와 조나이(町内)로 돌아 올 때 연주되고, ‘본하야시(本囃子)’는 간토(竿灯)의 연기가 펼쳐지는 동안 연주된다. 각 조나이(町内)에 따라 음조(音調)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한다.

<표4> 묘기대회의 심사부문

오와카(大若) 단체규정	고등학생 이상 성인 단체가 정해진 기술로 승부한다.
오와카(大若) 단체자유	고등학생 이상 성인 단체가 자유로운 기술로 승부한다.
오와카(大若)개인	고등학생 이상 성인이 정해진 기술로 승부한다.
하야시가타(囃子方)	고등학생 이상 성인 단체의 하야시로 승부한다.
고와카(小若)단체	초등학생 단체가 정해진 기술로 승부한다.
고와카(小若) 하야시가타(囃子方)	초등학생 단체의 하야시로 승부한다.

<표5> 묘기의 종류

나가시(流し)	같은 팀의 다음 선수가 간토(竿灯)를 쉽게 이어 잡을 수 있게 넘겨주는 기술이다.
히라테(平手)	간토(竿灯)를 오른팔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높이 들어 올려 보인다. 힘차고 호쾌한 기본기이다. 다른 쪽 팔은 활짝 열고 크게 균형을 잡는 기술이다.
히타이(額)	간토(竿灯)를 이마 위에 올려놓고 버티기, 목에 걸리는 중량감 넘치는 기술이다. 정지하여 양손을 벌리고 균형을 잡아 관객을 압도하는 수준 높은 볼만한 장면을 연출한다.
가타(肩)	간토(竿灯)를 들어 올려놓기 쉽고, 가장 터득하기 쉬운 기술이다. 오른팔을 구부리지 않고 장대를 똑바로 어깨에 내려 정지시킨다. 축이 되는 발과 간토(竿灯)를 일직선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고시(腰)	상당한 수련이 필요한 고급 기술로서 상체를 알맞게 옆으로 기울여 균형을 유지한다. 5가지 기본 연기 중에서도 절정의 큰 기술이다.

묘기대회는 낮 동안에 <표4>와 같이 6개 부문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하야시(반주대)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규정(規定)기술이란 <표5>와 같이 정해진 5가지 기술을 말하며, 자유(自由)기술이란 보통 간토(竿灯)에 대나무 장대를 2단 3단으로 늘여 더 높이 더 많이 휘어지게 하는 기술을 주로 말하지만, 이밖에도 일본 우산(和傘)을 돌리면서 혹은 부채(扇子)로 부치면서 하거나 게타(天狗下駄)를 신고 묘기를 펼치는 등의 창의적인 묘기를 가리킨다. 마쓰리가 시작되기 두 달가량 전부터 각 조나이(町内)별 예선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3위 이상의

입상자만 참여하여 간토(竿灯) 명인(日本一)을 가린다.

묘기대회의 심사 포인트는 ①기술을 넣었을 때 모습의 아름다움과 안정된 자세 ②직경 6m의 원형에서 연기를 하였는지 여부 ③장대를 두 손으로 잡지는 않았는가? ④간토(竿灯)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는가? ⑤버티는 힘의 정도 등으로 심사한다.

<표6> 간토마쓰리(竿灯祭り)의 경제 파급효과(단위 : 억 엔)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자소득유발액
직접효과	157.67	88.67	45.61
제1차 간접효과	56.41	32.42	27.76
제2차 간접효과	42.28	27.76	10.61
경제파급효과	256.36	148.85	83.98
파급배율	1.07	(경제파급효과/직접효과)	

이러한 묘기대회와 더불어 증가하는 야간의 간토(竿灯)행렬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조(高調)되어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100만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으다가 2010년에는 135만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는 2010년 보고서 자료 <표6>을 참조하여 보면, 생산유발액이 약 240억 엔, 부가가치유발액이 약 149억 엔, 고용자소득유발액이 84억 엔으로 조사되어 있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개인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제일 커 70억 엔, 운수 64억 엔, 상업 34억 엔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18개 부문에 파급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에 관하여는 종업원이 3,207명, 고용자가 2,759명 증가하였다. 이것은 간토마쓰리(竿灯祭り)의 개최로 아키타현(秋田県) GDP를 0.4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²⁰⁾

이것은 아오모리의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간토마쓰리(竿灯祭り)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앞의 논문, 寺田良介(2010) pp.3-4.

3.3. 센다이 다나바타마쓰리(仙台七夕祭り)

과거의 다나바타마쓰리(七夕祭り)는 칠석(七夕) 신앙을 기반으로 조상과 신의 안녕을 염원하는 소박한 민속행사로써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경기로 인해 해마다 칠석의 풍습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1927년 이를 염려한 센다이시(仙台市) 상인들이 뜻을 모아 대규모로 칠석장식물(七夕7つ飾り)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많은 구경꾼으로 상가는 북적였고, 다음 해에는 동북산업박람회와 관련하여 ‘장식 콩쿠르’가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센다이의 칠석장식물(七夕7つ飾り)이 화려하게 발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칠석(七夕)이라는 서민풍습은 다나바타마쓰리(七夕祭り)라는 상가(商街)에서 열리는 주간행사로 전환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사진1> 유오도오리(中央通り)의 후키나가시(吹き流し)

현재의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시(仙台市)에서 매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다나바타마쓰리(仙台七夕祭り)는 대규모의 장식물(飾り付け)이 시내 중심지 이치반초(一番町)와 유오도오리(中央通り)인 상점가 및 아케이드 거리, 센다이역 주변을 장식하는 행사이다. 이 장식에는 상가 조직, 어린이 단체²¹⁾ 등의 조직단위별 장식 및 개인매장이나 가정단위 등의 개별 장식이 있고, 시내 전역에 크고 작은 총 3,000여개의 장식물이 자태를 드러낸다. 동북 3

21) 다나바타마쓰리(仙台七夕祭り)에의 어린이 참가는 시내 각 초등학교나 각종 학원별 단위로의 참가가 일반적이거나, 친한 또래의 모임이나 지역(동네 모임)별 참가도 있다. 보통 5~6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며, 팀별로 약 1만 엔의 재료비 지원이 있다고 한다.

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의 하나로 꼽히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7가지 장식물(7つ飾り)은 모두 일본식 종이(和紙)로 만들며 칠석장식물(七夕飾り)의 제작은 대부분 전문 종이가게(紙店)을 운영하는 장인들에 의해서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린이나 가정에서는 소박하게 스스로 만든다.²²⁾

장식물의 제작비용은 조직단체가 부담하는 대형의 경우 프로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만들며 보통 200만 엔 정도이며, 개인이 상점에 장식하는 것은 20만 엔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스스로 부담한다고 한다. 다만 시 외곽에서 20개 이상 장식물을 만들 때에는 비용의 4분의 1정도를 센다이시가 상공회의소를 거쳐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표7> 7가지 장식물(7つ飾り)

후키나가시(吹き流し)	직녀의 직실(織絲)을 상징한다.
가미코(紙衣)	병이나 재앙을 물리치고, 대신 바느질 기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오리즈루(折鶴)	장수를 기원한다.
긴차쿠(巾着)	부귀와 저축, 상업이 번창하길 바란다.
도아미(投網)	풍어를 기원한다.
구즈카고(屑籠)	청결과 근검절약을 바란다.
단자쿠(短冊)	학문과 서예의 향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중심이 되는 장식은 후키나가시(吹き流し)이지만, 다른 6종류의 장식도 여러 곳에 볼 수 있다. 보통 후키나가시(吹き流し) 장식 5개가 1세트로 1개의 대나무 장대에 매다는 것이 정석이지만, 꾸미는 장소나 장식 디자인의 사정에 따라 수는 증감되기도 하며, 크기는 1미터 정도의 작은 것에서 10미터에 이르는 대형도 있다. ‘7가지 장식’이라 불리는 다나바타장식물(七夕飾り)에는 <표7>과 같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장식으로는 ‘가라쿠리다나바타(からくり七夕)’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닥의 실로 조정하는 인형이 올라탄 소형 무대에서 일정한 움직임이 자동으로 반복되도록 되어 있는 장식품이다.

22) 제작비용의 고액화로 다른 지역의 칠석제(七夕祭)에는 비닐로 만든 장식도 볼 수 있다.

칠석장식물(七夕飾り)은 상가의 점포가 돌보이게 천정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되며, 상가 중앙에 아케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갑자기 내리는 비를 대비해 비닐을 씌울 수 있게 되어있다. 전천후형(全天候型) 아케이드가 있는 상가도 밤이 되면 한번 장식을 내려 접거나 비닐봉지 등에 싸서 작게 만들어 통행인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올리고 있다. 이것은 심야에 파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마쓰리의 첫날에는 장식물의 완성도와 작품성, 인기도 등을 심사하는 다나바타장식물대회(七夕飾りコンクール)가 열리는데 194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상점이 2부분(東一番丁通り商店街 中央通り商店街)와 각 지구 4부분(青葉区周辺地区, 仙台駅前周辺・宮城野区地区, 若林区・太白区地区, 北地区)으로 나누어 금, 은, 동상을 수여한다.

부수적인 행사로는 마쓰리의 첫날인 8월 6일이 원폭의 날이라 ‘평화다나바타(平和七夕)’ 행사가 열린다. 이것은 일본 전국에서 보내준 100만 마리의 종이학 중 18만 마리는 후키나가시(吹き流し)형태로 장식하며 나머지 종이학은 화환(花輪)으로 만들어 관광객에게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이다. 이 밖에도 직녀선발대회(ミス七夕コンテスト) 및 사진전시회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미니칠석장식 체험행사(ミニ七夕飾り作り体験コーナー) 등도 열린다.

1927년 센다이시(仙台市)의 상인들에 의해 부활한 다나바타마쓰리(七夕祭り)는 2007년 조사에서는 마쓰리 기간(3일간) 332억 엔의 경제효과가 있었다(観光経済新聞, 2007年9月1日日字)는 보도가 있는데 짧은 마쓰리기간을 고려하면 네부타마쓰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효과이며, 무엇보다 오늘날 수도권 등의 기업이나 역, 공항 등지에도 화려한 센다이(仙台) 풍의 장식물(七夕飾り)이 내걸리면서 일본 전국 각지에 센다이(仙台)가 알려지고 있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4.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에 보이는 공통 구조와 의미

아오모리의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와 아키타의 간토(秋田竿灯祭り), 센다이의

다나바타(仙台七夕祭り)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한발 빠르고 비교적 용이하게 관광 상품화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칠석(七夕)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행사로서 특정 신(神)이나 종교(절, 신사)와 결부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의 동북지역은 원래 인구밀도가 낮아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과소화가 진행된 지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전통을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며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 동북의 전통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의 활성화(상품화)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구조적 특징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경쟁구도

먼저 동북 3대마쓰리는 모두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경쟁구도에 임하는 세 지역의 열기를 살펴보자.

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의 네부타대상(ねぶた大賞)이라는 현재의 1등 상명(賞名)의 변천²³⁾에서도 지역민의 관심도와 열의를 엿볼 수 있으며, 네부타의 제작자는 네부타의 제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수입과 직결되기에 자신의 명운을 걸고 창의적인 궁리를 더한다. 때문에 지난해의 작품을 재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매년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마쓰리가 열리기 직전까지 서로의 작품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필사적으로 경쟁에 임한다고 한다.

아키타 간토(秋田竿灯祭り)의 묘기대회와 센다이 다나바타(仙台七夕祭り)의 장식물콩쿠르(七夕飾りコンクール)라는 경연대회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묘기대회에서의 수준 높은 연기와 아슬아슬한 스킬에는 상상 이상의 뜨거운 호응이 있으며, 장식물콩쿠르의 열기는 관련 산업(和紙産業)의 발달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참여자의 규모도 심사대상이어서 보다 많은 참여자의 확보를 위해 고교생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용하는 방법까지 동원된다.

동북 3대마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는 장치로

23) 1962년에는 심사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잡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네부타의 구조, 오도리, 하야시, 유행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인 ‘타무라마상(田村磨賞)’을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1962년 이후 30여 년간 계속되어온 타무라마상(田村磨賞)이 네부타대상(大賞)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카노우에노타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는 아오모리를 비롯한 동북지방을 점령한 장군이라 “상명(賞名)에 정복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阿南2000, p.286.).

활성화된 것은 이와 같은 경쟁을 유도하는 시상제도의 도입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쓰리 속의 경쟁과 대립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타집단(他集團)과 타자(他者)로부터 구별되는 자집단(自集團)과 자기(自己)를 인식하는 장치로서 마쓰리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본고의 세 마쓰리에는 과거 전통적 의미의 마쓰리(祭り)에서나 관광화된 현재의 슈쿠사이(祝祭)에서나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구도라는 전통적이며 본질적인 형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쓰리 속의 경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져온 소속집단이나 지역을 자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의식(自慢意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마쓰리(祭り)에 임하는 지역문화가 뒷받침 되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4.2. 문화(자랑의식, 지역 활성화)

다음으로 이러한 경쟁에 임하는 세 지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적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네부타(ねぶた), 간토우(竿灯), 카자리((七夕飾り)라는 각각의 상징물(神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는 애향심과 지역민을 일심동체로 묶는 정체성 형성의 결정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마쓰리에의 참여가 지역을 공유하는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의무감도 느낀다.²⁴⁾

또한 개인은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차도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타인의 시선을 즐기면서 자신을 뽐내고(自慢意識), 달성감(성취감)과 자긍심을 얻는다.²⁵⁾

24) 유튜브 자료(www.youtube.com/watch?v=53Q5vA4nFOU)(검색일: 2019.05.15.)와 이덕구(2010, 2011, 2012, 2014)의 연구에서 지역민 및 참가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

25) 마쓰리의 참여자의 의식조사에 대한 연구에는 이덕구(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를 참조해 보면, “마쓰리의 현장에서 참가자의 기분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이들의 대답은 대체로 무아지경에 빠진 기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미있어서 참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남, 30대). “내가 빛나고 있는 기분이 든다. 최고! 죽도록 즐거운 기분입니다”(여, 20대). 트랜스상태에 빠진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은 전부 잊게 해 준다”(여, 20대). “춤추는 동안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트랜스상태라고 말 할까요”(여, 30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몸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지역의 기업이나 기타 기관단체는 마쓰리를 통하여 공동체에 공헌하고 기여함으로써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한다.²⁶⁾

여기에 최근에는 마쓰리를 통하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²⁷⁾도 지역주민사이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 스스로가 마쓰리에서의 수상을 크게 인정하고, 특히 대상(1등, 최고)팀은 도시전체가 축하하고 칭찬하며 기억하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마쓰리의 존재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이런 경쟁(마쓰리)을 왜하는지에 대한 답도 스스로 얻는다.

즉, 이들 지역에는 오랜 세월 전통마쓰리에 의해 길러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소속집단이나 지역을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自慢意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마쓰리(祭り)에 임하는 지역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문화가 마쓰리 속의 경쟁구도와 맞물려 해마다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3. 고도의 기술

전통적 의미의 마쓰리(祭り)나 관광목적의 슈쿠사이(祝祭)에서나 경쟁이 본질적 요소라면 이제 세 지역에서는 무엇으로 경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오모리 네부타(靑森ねぶた祭り)에는 네부타라는 상징물의 작품성이 승부(60점/100점)를 가르기에 네부타시(ねぶた師)라는 네부타 제작을 전업으로 하는 프로의 제작자가 마쓰리가 열리기 직전까지 서로의 작품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것은 제작기술상의 노하우를 지키기 위함이다.

다나바타(仙台七夕祭り)에서는 장식물(飾り)이 심사의 대상이기에 제작하는 대부분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프로의 장인들이라고 하며,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섬세한 작업일 뿐 아니라 특별한 미적 감각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랄까”(남, 20대). “날아가고 싶은 기분입니다”(남, 20대). “지금의 내가 최고로 멋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여, 10대), 등의 대답을 했다(이덕구 2012, p.256.).

26) 기업이 네부타마쓰리에 네부타를 내보는 이유는 “단순한 기업명을 노출시킨다는 의미의 선전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와 지역문화의 계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종업원의 ‘자긍심’ 향상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며, 더욱이 자금력과 조직력을 사회에 과시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 기업이미지의 생산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로 볼 수 있다(이덕구2014, p.324).

27) 과거에는 마쓰리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예로부터 대대로 해왔기에 한다.”는 대답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의식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도 필요하다고 한다.



<사진2> 간토(秋田竿灯祭り)의 히라테(平手)묘기

아키타 간토(秋田竿灯祭り)에서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연습에 의해 길러진 균형 감각이 승부처가 된다. <사진2>는 손바닥 위에서 중심을 잡아 보이는 히라테(平手) 묘기로서 비교적 쉬운 기본기에 해당되지만 일반인은 단순히 들어올리기조차 힘든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묘기대회에서 펼쳐지는 와자(기술)는 정해진 와자(規定技)와 자유로운 와자(自由技)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인 체력의 유지와 더불어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 온 개인기가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²⁸⁾ 여기에 팀원들 간의 호흡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에 고도의 숙련된 연기가 필요하며 이것이 한 차원 높은 볼거리가 된다.

이와 같이 아오모리(青森), 아키타(秋田), 센다이(仙台)의 각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높은 난이도의 축적된 기술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역을 구분 짓는 정체성이 되며,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컬리티가 되고, 명품축제(명품도시)로 인정받는 저력이 됨을 알 수 있다.

28) 실제로 축제장에 마련된 관광객을 위한 체험코너에서는 성인이라도 어린이용 간토(竿灯)만을 들어 볼 수 있는데, 등롱(提灯)이 대나무장대에 매달려 있어서 탄력으로 인해 실제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며, 휘청거리서 생각보다 들어올리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네부타마쓰리(青森ねぶた祭り)가 잡다한 문화체육행사에서 네부타만으로, 아키타 간토(秋田竿灯祭り)는 등롱(提灯)이라는 소재만으로, 다나바타(仙台七夕祭り)는 장식물(七夕飾り)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진화해 간 것은 일본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다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개성을 대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결국 마쓰리(祝祭)는 고도의 전문화된 행위(기술)임을 의미한다.

4.4. 어린이의 참가

다음으로는 누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전통 마쓰리(祭り)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는 터부시되었으나 관광 상품화로 진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오모리네부타(青森ねぶた祭り)에서의 어린이네부타(子供ねぶた)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네부타로, 본격적인 네부타마쓰리에 앞서(한 달 가량 전부터) 곧 이어질 본방(本番)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전초전과 같은 성격으로 운행하였고, 현재는 주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네부타가 제작되어 도시의 요소요소에 전시하고 있다.



<사진3> 아오모리 역사(駅舎)에 전시된 어린이 네부타

아키타 간토(秋田竿灯祭り)에서는 유치원생 이하의 요와카(幼若), 중학생의 주와카(中若)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중심이 되는 고와카(小若)는 마쓰리의 주요 포인트로서 지역민의 관심과 응원이 집중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센다이 다나바타(仙台七夕祭り)에서도 어린이들이 참가는 다양한 루트로 열려 있으며, 메인 광장에서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체험코너도 마련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주로 조나이(町内) 청년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성적은 곧 청년회의 노력과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이 역할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²⁹⁾

이처럼 어린이의 참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쓰리를 둘러싼 문화유산이 자연스럽게 후대에 전승되고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어린이와 여성(어머니의 뜨거운 관심)의 참여는 상호보완적 시너지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4.5. 상인의 자금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한마당이 누구의 자금으로 마련되는가 하는 점이다. 세 마쓰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전액 주민³⁰⁾ 스스로에 의해 마련된 자금이다.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약간의 국가지원금(세금)은 주최 측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과 의료, 청소 등의 간접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마쓰리(祭)에 사용되는 각각의 상징물의 제작과 운영경비 대부분도 지역민(주로 상인, 지역 기반의 기업, 시민단체, 학교, 관공서)들이 부담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인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매년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마쓰리의 개최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여 참가한다는 것은 주체성과 책임감이 동시에 주어져 더 나은 행사를 위한 창의적인 궁리와 참여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마쓰리의 재미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축적한 물재(物財)와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입하는 데 있고, 그 열기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설적인 연쇄가 일어나는 데 있다. 타인을 불러들여 즐겁게 하고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돈을 쓰고 마쓰리에 투입하여 즐겁게 하지 않으

29) 아키타시(秋田市)의 청년회장은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을 받들어 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향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협조하고 배려하는 마음, 사제 간의 예절을 아는 마음 등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장소로서 대대로 꼭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30)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상점가, 학교, 행정기관, 조나이카이(町内会), 가정, 개인 등 지역의 주체 모두가 참여 하지만, 주로 상점가 상인들이 주체가 된다.

면 안 된다.”는 아오모리네부타(靑森ねぶた祭り) 관계자의 말에서 마쓰리를 바라보는 지역 상인(商人)들의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³¹⁾

5. 결론

‘우리’를 의식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던 전통 마쓰리(祭り)에서 오늘날 관광 목적의 슈쿠사이(祝祭)로 진화한 동북 3대마쓰리(靑森ねぶた祭り, 秋田竿灯祭り, 仙台七夕祭り)는 주민(주로 상인)들의 자급에 의해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참가하여 고도의 기술(와자)을 겨루는 소통의 장소이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실효성 높은 문화적 경제 장치임을 살펴보았다. 이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공통 요인으로는 ①경쟁 구도의 조직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창조적인 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점 ②소속집단이나 지역을 자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쓰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마쓰리의 상징물 제작술(制作術)이나 연기술(演技術)은 난이도가 높아 지역의 고유성을 띠며,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기술이 볼거리의 차원을 높이는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④학교와 청년회(青年會)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어린이의 참가가 활발하여 자연스럽게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점 ⑤상인들의 자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대단히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 3대마쓰리(東北三大祭り)는 지역민의 “자랑(自慢)의식과 경쟁구도, 고난이도의 기술 소재와 어린이의 참가, 지역민의 자급”이라는 크게 5가지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전승 고조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지역정책이 마쓰리(まつり)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으로는 미인 선발대회(미스네부타 콘테스트, 직녀선발대회)나 ‘가라쿠리다나바타(からくり七夕)’, ‘평화다나바타(平和七夕)’행사와 같은 전통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의미 부여와 재미와 분위기 향상을 위한 오락적 보조 프로그램의 추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1) 지역민의 축제의식에 대해서는 필자가 진행 중인 후속연구 “한일(韓日) 상인(商人)들의 연중 커뮤니티 활동 비교연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류정아(2013) 『축제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덕구(2010) 「일본 지역 전통축제의 관광화와 시사점 -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第46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429-448.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46.201008.435>)
- _____ (2011) 「도시특성과 축제-아오모리시(青森市)와 히로사키시(弘前市)의 축제 변화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第49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7-307.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49.201105.287>)
- _____ (2012) 「현대 도시축제의 참여의식에 대한 일고찰-히로사키요사코이쓰가루(弘前はさこい津軽)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第54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239-260.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54.201208.239>)
- _____ (2014) 「축제와 지역사회-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역할과 의미-」 『日本文化學報』 第60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5-333.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60.201402.315>)
- _____ (2015) 「네부타(ねぶた)와 네부타(ねぶた)-아오모리네부타와 히로사키네 부타의 전통과 변용-」 『日本文化學報』 第67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5-333. (DOI: <http://dx.doi.org/10.21481/jbunka.67.201511.285>)
- 芦田徹郎(1990) 「祭り」と現代社会・序説」 『熊本大学教養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25, pp.31-62.
- 阿南透(2000) 「青森ねぶたの現代」 『青森ねぶた誌』 青森市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pp.252-277.
- _____ (2000) 「青森ねぶたの現代的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pp.263-299.
- 桜井徳太郎ほか(1984) 『共同討議 ハレ・ケ・ケガレ』 青土社.
- 寺田良介(2010) 「青森ねぶた祭りと秋田竿灯祭りの経済効果」 弘前大学人文学部編, pp.1-7.
- 古川 実(2000) 「青森ねぶたと子供たち」 『青森ねぶた誌』 青森市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 柳田国男(1990) 「日本の祭」 『柳田国男全集13』 弘文堂書房(旧版1942).
- _____ (1993) 『明治大正史世相篇』 新装版, 講談社(講談社学術文庫旧版1931).
- 和気静一郎(2000) 「祭り、その現代的よみがえり」 『技術と人間』 29(6)卷 308号, pp.82-91.
- 東奥日報 1956.08.09.日字, 1964.08.10.日字, 1982.08.04.日字, 2008.08.05.日字.
- 観光経済新聞, 2007.09.01.日字.

<http://www.kantou.gr.jp/about/> 秋田竿灯まつり-Akita Kanto Festival- 国重要無形民俗文化財 (검색일: 2019.01.20.)

<https://www.youtube.com/watch?v=V4rLps08LYk&t=137s> ドキュメンタリー 「秋田の夏にかける想い」 竿灯まつり(검색일: 2019.02.22.)

www.sendaitanabata.com/english/.../2017_prize_d.pdf 平成29年度仙台七夕まつり 団体審査」 入賞一覧(검색일: 2019.02.30.)

ja.wikipedia.org/wiki/仙台七夕 仙台七夕 - Wikipedia(검색일: 2019.04.11.)

gurutabi.gnavi.co.jp 日本国内おすすめの観光・グルメ・体験アクティビティ(검색일: 2019.04.20.)

www.youtube.com/watch?v=53Q5vA4nFOU(검색일: 2019.05.15.)

<http://human.cc.hirosaki-u.ac.jp/jinbun/web/img/pdf/research22/econ4.pdf> 青森ねぶた祭りと秋田竿灯祭りの経済効果(검색일: 2019.05.15.)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要旨>

日本祭りの活性化と伝承メカニズム
-東北三大祭りを事例として-

李徳求

本研究は、日本の東北地域である青森、秋田、仙台で行われている伝統的な祭りである青森ねぶた祭り、秋田竿灯祭り、仙台七夕祭りを対象にして、伝統祭りの観光商品化への成功要因と見られる構造的・文化的特徴を導き出し、その意味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三つの祭りに見られる共通した成功構造とこれを作動させる原理としては、①競争構図の組織的な装置が設けられており、雰囲気高め、創造的な進化を導き出していること。②所属集団や地域を誇り最高と考える共同体意識に基づき、祭の成功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地域文化が形成されていること。③祭りの象徴物の制作術や演技術などは難易度が高く、地域の固有性を帯びており、長年蓄積された技術が見どころの次元を高める底力として作用している点。④学校や地域青年会の積極的な後援により、子供の参加が活発になり、自然に後世に伝えられていること。⑤商人たちの資金によって運営されていて、極めて効率的に行われていること、などの5つを捕らえた。

つまり、東北三大祭は、地域住民の「誇り意識と競争構図、高難易度の技術素材と子どもの参加、地域住民の資金」という大きく5つの要素が有機的に絡み合っ作動するメカニズムの中で、後代に伝承されており、地域経済を生かす仕掛けとして活性化されていると言えよう。

A Study on the Success Mechanism of Matsuri in Touhoku Japan

Lee, Deok-Ku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ccess mechanism of Aomori Nebuta *matsuri*, Akita Kanntou *matsuri*, and Sendai Tanabata *matsuri* which are held every year in Touhoku, Japan. The success mechanism is summarized as follows: ① organizational devices of competitive structure are in place, leading to creative evolution, ② based on the sense of community, there is a local culture that contributes towards *matsuri's* success, ③ the excellent acting skills of participants expres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vide an attraction for visitors, ④ children participate actively through schools and youth associations leading to the transfer of culture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⑤ merchants run *matsuris* at their own expense which makes it cost-effective and economical.

In other words, via the three Touhoku *Matsuri*, "proudness, competition, high-level technique, children's participation, and local people's funds," ar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and activated as devices to revive the local economy under a mechanism that works organically and collectively.